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구원하시며 고치시리라”
새해 지구촌 기상이변 속출...유럽 한겨울 물난리에 기록적 한파**



새해 첫 주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수일간 이어진 폭우로 물난리가 났고, 북유럽에는 25년 만에 기록적 한파가 닥쳐왔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전날부터 밤새 쏟아진 폭우로 이날 오전 기준 전역에 300여 건의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역도 수백 곳으로, 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약 5일 동안 전국의 강이 범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맘때 영국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나, 이번에는 불안정한 상태의 폭풍우가 영국 남부를 강타하며 엄청난 양의 비를 몰고 왔다. 이로 인해 영국 각지에서 기차 운행이 멈췄으며 런던에서는 길이 물에 잠겨 최소 5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템스강 템플 부두에서는 보트 여러 대가 물에 잠겼다.

지난해 연말 이미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던 프랑스의 북부 마을은 피해를 복구할 새도 없이 새해부터 다시 물에 잠겼다. 가장 피해가 큰 북부 파드칼레 지역에서는 최소 2만 가구가 홍수 피해를 보았으며, 지역 소방 당국에는 일주일 새 700여 건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에서는 폭우로 훼손된 댐의 제방을 고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됐다. 이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 댐이 일부 범람해 마을과 농지가 잠기는 일이 벌어졌다.

북유럽에는 기온이 영하 40°C 아래로 내려가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쳐왔다. 노르웨이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노르웨이 북부 케우토케이노 지역의 기온은 영하 43.5°C로, 2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스웨덴 북부는 이보다 더 추워 이날 영하 43.8°C까지 내려갔다. 이는 1999년 이래 가장 추운 1월 날씨다.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주 내내 불어닥친 한파로 주요 도로가 결빙으로 폐쇄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지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도 혹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12-13,20)

하나님, 이상기후 현상으로 물난리와 극심한 추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 지역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럽인들이 기록적인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유럽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사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북한 연평도·백령도 해안포 발사…주민들, 일상 마비 등 긴장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서해 해안에서 연평도·백령도를 향해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하고 이에 한국군이 반격한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서해 최북단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이 마비되는 등 긴장 속에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연평도·백령도 근처 바다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군이 포사격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이다. 이에 합참은 북한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두 차례 대피령을 받아 일이 전부 멈춰진 상태로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6-7)

하나님,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해안포를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을 꾸짖어 주시고, 불의한 계획이 힘을 잃게 하사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불신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게 하옵소서. 군사 도발로 일상이 마비된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어 고통하며 메말라가는 동포를 위해 간절한 기도도 나아가게 하소서.

▲ 파푸아뉴기니, 경찰 군인 파업…치안 공백 틈타 상점 약탈 방화 등 소요 사태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경찰이 임금 문제로 파업에 들어가자 상점 약탈 등 치안 공백을 노린 대규모 소요 사태가 여러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10일 오전 포트모르즈비에서는 경찰과 군인, 교정 공무원 등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자, 군중은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했다. 파우스 파콥 포트모르즈비 주지사는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 없는 도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 제2 도시인 라에에서도 군중이 길거리로 나와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 호주 ABC 방송은 이번 일로 포트모르즈비에서 8명, 라에에서 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에베소서 2:3-5)

하나님, 경찰의 통제가 사라지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비참함을 파푸아뉴기니의 영혼들이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소요가 멈추게 하소서.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아와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을 따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전 세계 46개국에서 개종 금지법 시행하고 있어**



2023년 12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46개국에서 개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한 혐의로 기독교인 9명이 체포됐고, 6-7월에는 이란의 11개 도시에서 106명의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도 2023년 4월에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선교 활동 혐의로 추방됐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16개국이 있고,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9개국,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10개국, 유럽과 유라시아에 7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4개국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종 금지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거나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제한하는 경우로 총 29개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을 가지고 있다.

브루나이,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나우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알제리, 이란, 이스라엘, 모로코,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부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코모로, 소말리아가 해당한다.

둘째, 타 종교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을 법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로, 이라크, 바레인, 방글라데시,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25개국에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개종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절차와 특정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7개국이 해당한다.

넷째, 브루나이, 이라크,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모리타니 등 7개국은 배교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예멘과 사우디에서는 배교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43개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니제르, 이집트 등에서도 개종 금지법과 유사한 형태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통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한 해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시편 31:22-24)

하나님, 전 세계 46개국에서 개종을 금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악한 시도를 무너뜨려 주소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변치 않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순종의 걸음에 응답하사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해주소서.

▲ 이란 여성 기독교인,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형 선고 위기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여성인 미나 카자비(60)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카자비는 '시온주의' 기독교를 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동료 말리헤 나자리와 조셉 사바지안 목사는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6년 형과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바지안 목사와 나자리는 몇 달 후 복역을 시작했으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카자비는 일시적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과 관절염 등 신체적 어려움에도 지난 3-5일 이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갑자기 끝났다. 인권운동가들은 카자비가 단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투옥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 중단을 촉구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시편 118:5-6)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전하다가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란 기독교인을 부당한 판결에서 건져 주시고,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로 다른 이들에게도 암묵적 위협을 가하는 정부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두려움이라는 장애물로 막고 있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이때, 이란의 교회 공동체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사 위기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구, LGBT 이념 교육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과 사춘기 차단 약물 등 LGBT(내 맘대로 성별) 이념을 홍보하는 자료를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헤이우드 통합 교육구(HUSD)는 1만 9,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들에게 LGBT 이념을 다루는 수업 계획과 자료, 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5세 미만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HUSD 산하 학교들에게 LGBT 이념과 역사, 프라이드 달을 기념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학생들이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과 대명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포함돼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로마서 8:6-7)

하나님, 약 2만 명의 학생 수를 가진 캘리포니아 교육구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며 어린이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추구하는 정책이 스스로 불의한 줄을 알기에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당국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캘리포니아의 학부모와 교회를 일깨워 주셔서, 거센 세상의 유혹과 거짓 앞에 자녀의 영혼을 지키며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줄 아는 다음세대를 길러내게 하소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도시 선교 다변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 필요해**



지난 75년 동안 인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20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에 살고 있다. 2014년 인도복음주의연합은 도시변혁센터(National Center for Urban Transformation, NCUT)를 설립하고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이주민, 빈민, 여성,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도시변혁센터(NCUT)는 도시 사역을 위한 성경 대학과 신학교 과정을 개발했고, 현재 인도 전역 32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에 도시변혁센터(NCUT)의 대표이자 선교학자인 아그함카르(Atul Aghamkar) 박사는 ‘다시 생각하는 인도의 도시 선교와 사역’을 출간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장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사역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말한다. 벵갈루루에서는 밤에 일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휴식을 제공하는 목적의 카페테리아 행사를 열고 있고, 기독교인이 이끄는 IT 회사는 혁신과 창의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행사를 통해 기독교인의 가치와 관점을 비기독교인들과 나누고 있다.

프라야그라지(Prayag raj)에서는 기독 의사들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다른 종교를 가진 의사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그함 카르 박사는 지금껏 많은 교회가 도시 이주민들의 가난과 고통에 대응하면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힘써 왔다고 말한다.

덧붙여 이제 도시 교회들이 더욱 전문화된 이주민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때라고 조언 한다. 그리고 도시 교회 안의 교인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준다면 선교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교회 안팎으로 병자 방문, 셀그룹 인도, 부부 상담, 직업교육, 방과 후 수업과 같은 의료와 교육, IT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5:16,21)

하나님, 인도의 도시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들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선교가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인도에 복음을 모르던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 그리스,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아동 입양도 허용

인구의 80-90%가 정교회 신자인 그리스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국영방송 ERT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10일 “우리가 입법화할 것은 결혼 평등이며,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은 허용하되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는 2015년 12월 그리스 의회에서 동성 결합 법안이 통과될 때도 가족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 중 35%가 동성 결혼 허용에 찬성, 49%가 반대했고, 16%는 응답을 거부했다.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시편 4:2-4)

하나님, 동성 결혼 합법화와 아동 입양까지 허용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그리스의 정부의 악한 계획이 무너져,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경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포기치 않을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기에 놓인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으로 바꾸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던 인생들을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에 전해져 반역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 순교자 수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목록서 제외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에서 제외된 데 대해, 종교자유 옹호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투데이(CP)가 6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CPC 목록에는 나이지리아가 빠져있고,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은 포함됐다. 나이지리아는 2020년 트럼프 정부 당시 CPC 목록에 추가됐다가, 바이든 정부 첫해부터 3년 연속 빠졌다. 이에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션 넬슨 글로벌 자문위원은 “나이지리아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와 관련해, 그들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이사야 59:15-16,18)

하나님,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응과 도움이 적절치 않은 나이지리아를 주님이 살피시며 친히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진정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바라보는 모든 종교 단체들이 그 어떤 기관과 사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만연한 박해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위협과 권세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사 열방의 모든 교회가 고난 속에 감추인 영광을 보며 주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